

불이 났을 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step
1



화재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라!

최초로 화재를 발견했다면,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르고 주변인들에게 큰소리로 화재발생을 알립니다. 소방서(119)에 화재 발생 내용을 침착하게 신고합니다.

종사자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초기 소화 및 신생아 대피를 준비합니다.



화재 신고 내용

00시 00분 00건물 0층 00산후조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생아 00명, 산모 00명, 종사자 00명 1층 또는 옥상 등으로 대피하겠습니다.

step
2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하라!

화재 발생 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초기 소화가 가능할 정도로 화세가 크지 않고 유독가스의 영향이 적으며, 피난로가 확보된 경우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합니다. 실패한 경우,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폐쇄하고 대피합니다.

종사자는 초기 소화작업과 관계없이 신생아 및 산모의 피난 준비를 합니다.

step
3



신속히 대피하라!

육성 또는 방송을 통해 피난 명령(1층/ 옥상 또는 층내 안전한 곳 등 산후조리원의 특성에 맞게 대처)을 전달합니다.

동일 층내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일부 산모가 신생아 대피를 도우며, 별도의 층으로 운영할 경우, 신생아는 종사자가 대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생아는 대피용 조끼, 이동식 요람 등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마지막 피난 담당자는 신생아 및 산모가 건물 내에 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대피용 조끼



이동식 요람

step
4



안전한 곳으로 집결하라!

화재 등 재난 시 피난할 경우 별도의 집결지(열, 연기, 낙하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를 지정 하며, 이곳에서 부상자와 실종자를 파악합니다.

재난 시 비상연락망

구분	담당기관	긴급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화재·구급신고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병원		
관리사무실	총무과장		
전기 또는 가스안전공사	지역별 지사		
관공서	()		
기타 관련 기관			